

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

김천구 연구위원(ck1009@korcham.net)

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,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, 노동력 미스매치, 직접일자리 증가, 취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. 향후 노동시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, 코로나 이후 급증한 직접일자리와 정상화 등 요인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서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생산성 높고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.

I. 서론

□ 국민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

- 일자리 창출은 가계 소비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키며 경제적 복지와의 연결
- 실업자가 증가하면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며 경제적 고통이 증가
 -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측정하는 경제고통지수(Misery Index)의 경우 물가와 함께 실업률의 합으로 계산
-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면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과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음

- 따라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음

□ 생산연령계층의 취업 여부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

-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·고령화로 노동의 양적 투입이 줄어들며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중요해짐
- 청년층의 경우 취업을 통해 사내교육, 업무 경험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
- 노동시장 경력 초기에 실업 장기화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 가지지 못할 경우 장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상처(scar) 줄 수 있음

*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(Sustainable Growth Initiative)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

□ 일반적으로 고용은 성장과 상호관계를 이루는데, 작년부터 생산 측면에서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노동시장 역시 호조를 보임

-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탄력성 등 두 가지 요인이 중요
 -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려면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당 고용창출력이 커야 함
- 2022년 경제성장률은 4.1%, 202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.0%로 잠재성장률(약 2%대)을 상회
- 최근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는데, 향후 양적인 고용 확대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하고 고용의 질적 개선 여부를 평가해 볼 필요

□ 본 연구는 최근 국내 고용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

- 국내 고용시장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각각의 요인들이 주는 경제적 함의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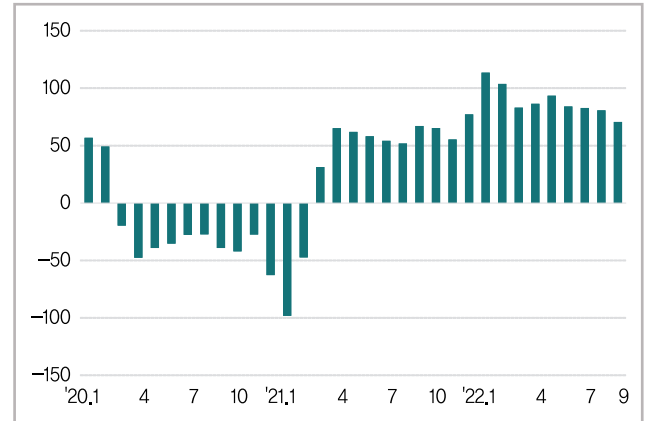
II. 국내 노동시장 현황

□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국내 고용시장은 올해에 고용회복 속도가 가팔라짐

- 신규취업자수는 금년 1월과 2월에 2000년 5월(103.4만명) 이래 처음으로 백만명*을 넘어섰음
 - * '22.1월 113.5만명, 2월 103.7만명
- 최근인 9월에도 신규취업자수는 70.7만명 늘며 증가세가 유지

- 올해 9월의 고용률(15세 이상)은 62.7%로 역대 최고치(9월 기준), 실업률은 9월 기준 2.7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

[그림1] 신규취업자수 추이 (단위: 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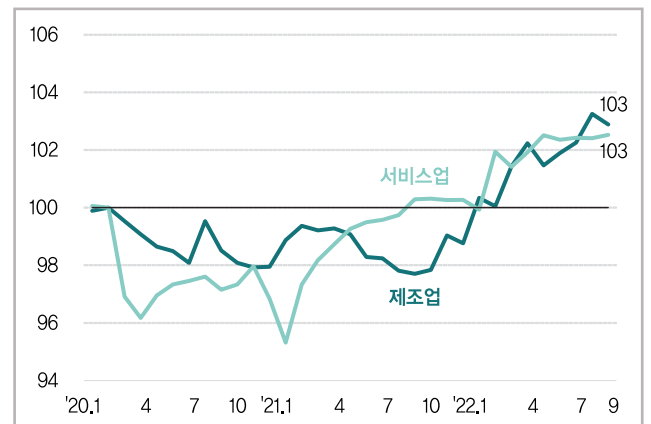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
주 :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감

□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금년 1월, 서비스업의 경우 작년 7월에 취업자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

- 제조업 고용은 상당 기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돌다 올해 들어서며 취업자수가 빠르게 증가
- 서비스업 고용은 코로나 이후 침체 폭이 컸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

[그림2] 코로나 이후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(단위: '202월=100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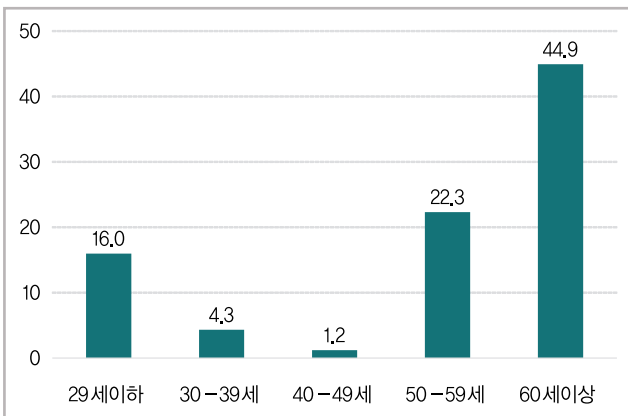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

□ 고령화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,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수 역시 많이 증가

- 금년(1~9월) 취업자 증가 폭은 88.7만명인데 그중 60세 이상은 44.9만명으로 50.6%를 차지
- 경제의 허리인 30~40대는 5.5만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 중 6.2%에 불과
 - 30~40대 고용 부진은 '22년(1~9월)에 전년동기대비 30대 인구는 △12.9만명, 40대 인구는 △7.5만명 줄어든 데 따른 인구효과*에 상당폭 기인
- * 연령별 인구변화('22.1~9월, 전년동기대비) : 15-29세 △20.1만, 30-39세 △12.9만, 40-49세 △7.5만, 50-59세 +3.6만, 60세 이상 +56.3만
- 청년층(15~29세)의 경우 '22년(1~9월)에 인구가 20.1만명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16.0만명 증가

[그림3] '22년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폭 (단위: 만명)



자료 :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
 주 : '22년은 1~9월까지이며 전년동기대비

Ⅲ. 최근 노동시장의 특징

□ 최근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

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

- 높은 고용회복세, 여성층 노동시장 유입,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
- 한편 노동시장 미스매치, 직접일자리 증가,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부진, 노동력 고령화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됨

[표1] 최근 노동시장의 7대 특징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성장 웃도는 고용회복 |
| ② 여성층 노동시장 유입 지속 |
| ③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증가 |
| ④ 코로나가 촉발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|
| ⑤ 직접일자리 증가 |
| ⑥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부진 |
| ⑦ 노동력 고령화 지속 |

1) 성장 웃도는 고용회복

□ 성장이 창출하는 고용의 양을 의미하는 고용탄성치*는 경제활동인구조사**가 처음 시작된 1963년 이후 가장 높을것으로 전망

- * 고용탄성치=취업자증가율/경제성장률
- ** 1957년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고용통계는 1963년에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편
- 우리나라 고용탄성치의 장기평균값을 구해보면 약 0.34임
 - 즉 경제성장률이 1% 높아질 때 국내 취업자수는 약 0.34% 늘어왔음
- 금년 고용탄성치는 1.04로 장기평균을 크게 웃돌며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시작된 1963년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
- 한편 내년 고용탄성치는 0.24로 장기평균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

-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은 한국은행 전망치* 사용하여 예측
- * 경제성장률 : '22년 2.6%, '23년 2.1%
- 취업자증가율 : '22년 2.7%, '23년 0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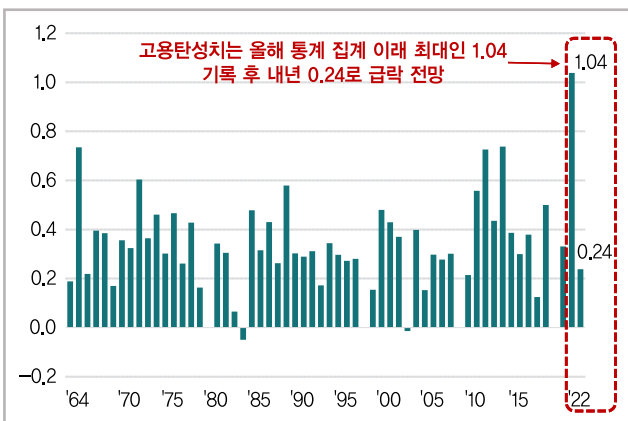
□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은 가계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임

-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와 취업자 증가,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은 2022년 1분기 4.3%, 2분기 3.9%, 3분기 5.9%로 높은 수준을 유지

□ 한편 현재의 취업자 증가를 경제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앞으로 고용시장 호조는 지속하기 어려움

-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루어져야 인력 수요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남
- 만약 경제성장 없이 정부가 고용 증가에만 목표를 둔다면 결국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
 - 고용탄성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지수(산출량지수/노동투입량지수)가 낮아질 가능성을 내포

[그림4] 고용탄성치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
 주1) 고용탄성치=취업자 증가율/경제성장률
 2) '22년과 '23년은 한국은행 전망치 이용하여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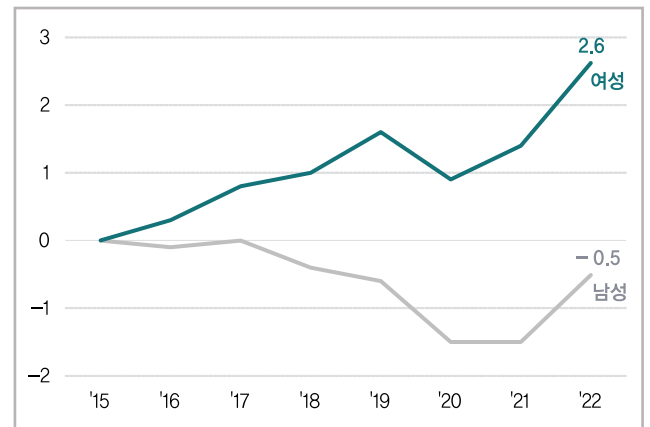
2) 여성층 노동시장 유입 지속

□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

- 남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*은 정체됐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51.9%에서 2022년(1~9월) 54.5%로 2.6%p 증가
- * 경제활동참가율=(취업자+실업자)/15세 이상 인구 × 100
- 경제활동참가율은 국가 경제에 주어진 인적 자원 중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국가 경제의 생산 잠재력이 높아짐

[그림5]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

(단위: %)



자료 :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
 주1) 2022년은 1~9월 기준
 2) 2015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은 74.1%, 여성은 54.5% 였음

□ 저출산·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경제 상황에서 여성층의 노동시장 유입은 긍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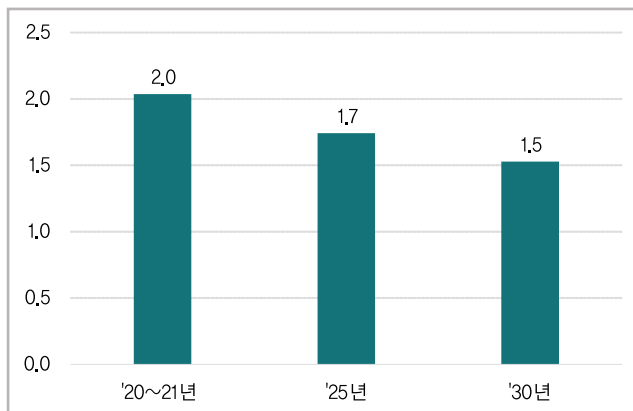
- 향후 노동 투입 둔화에 대응하는 국내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출산율 반등, 정년연장과 함께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꼽힘

-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세를 보이거나 아직 OECD에 속한 유럽 국가(55.3%)에 미치지 못함

□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유럽 국가만큼 높아진다면 2030년 국내 잠재성장률은 1.5%에서 1.73%로 0.23%p 높아질 것으로 기대¹⁾

- 2020년 기준 2% 수준인 국내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감소 영향으로 2030년 기준 1.5%까지 하락 예상
- 육아·출산 이후 경력단절로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국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에 속한 유럽 국가만큼 높이면 2030년 잠재성장률 0.23%p 높일 수 있음

[그림6]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 (단위: %)



자료 : 대한상공회의소 SGI

3)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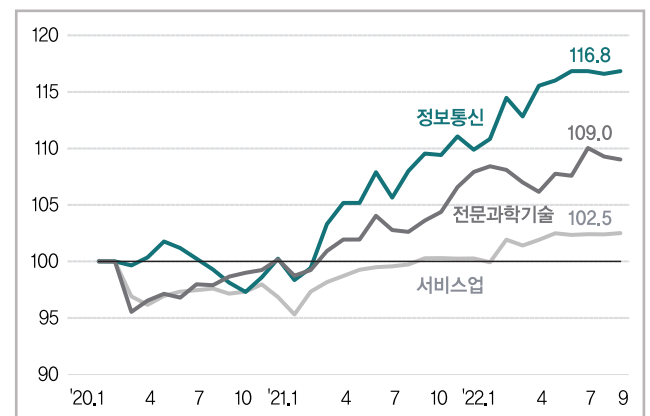
□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며 IT 및 R&D 관련 산업인 정보통신업, 전문과학기술에서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남

-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혜택을 받은 IT산업이 성장하며 일자리 구조 변화를 촉발

- IT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프로그래밍, 소프트웨어 관련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구인난 나타남
- 인공지능, 반도체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R&D 투자 수요도 증가
- 실제로 정보통신업 취업자수는 '22.9월 기준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('20.2월) 16.8%, 전문과학기술은 9.0% 늘어 서비스업 평균(2.5%)을 능가

[그림7] 정보통신, 전문과학기술 취업자수 추이

(단위: '20.2월=100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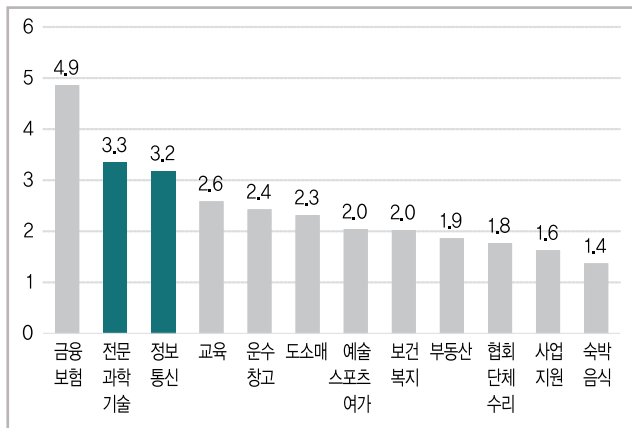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
주 : 계절조정 계열

□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은 고부가 업종으로 여타 서비스업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

- 시간당 임금('22.1~6월 평균)은 정보통신업의 경우 3.2만원, 전문과학기술업은 3.3만원으로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(4.9만원) 다음으로 가장 높음
- 전산업 평균인 2.5만원과 비교하더라도 정보통신업은 1.3배, 전문과학기술업은 1.4배 높음

1)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는 김천구(2021), "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"을 참고

[그림8] 서비스업 시간당 임금 (단위: 만원)



자료 :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이용하여 자체계산
 주 : 시간당 임금=전체임금총액/전체근로시간

4) 코로나가 촉발한 노동시장 미스매치

□ 코로나 19 충격으로 2020년 이후 노동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

-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기업의 채용도 축소되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됨
- 제품 수요 충격에 대해 고용자의 해고로 대응했던 산업 중 일부는 기존 일자리를 로봇과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

□ 경기가 회복되며 기존 산업에서 이탈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하는 일자리 재배분 (reallocation) 과정이 일어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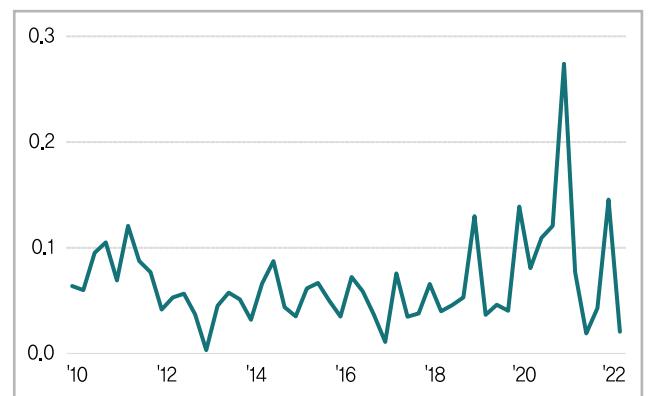
-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의 경우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 등 기존 일자리가 보유한 기술과 다른 능력 요구하며 일자리의 미스매치 확대
- 현행 교육제도로 길러지는 인재와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 등으로 산업의 일자리 수급을 맞추기 어려움

- 이에 따라 체감적으로 IT, 금융 등 수요가 확장되는 산업들은 구인난, 수요 위축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는 구직난을 느낌

□ 실제로 국내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를 계산해 보면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도가 높아짐

- ECB(2015)²⁾가 제안한 방법으로 교육수준별 미스매치지수를 계산한 결과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
- 한편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확대된 것은 주요국의 공통적 현상³⁾

[그림9] 교육수준별 미스매치지수 (단위: %p, %)



자료 : 저자 자체계산
 주 : 지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별 미스매치도 높음

〈노동시장 미스매치지수 산식〉

- 본 연구에서는 ECB(2015)가 제시한 노동력 미스매치지수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정도별 미스매치지수를 산출

$$\text{미스매치 지수} = \sum_{j=1}^3 (S_{jt} - D_{jt})^2 \times 100$$

S_{jt} : t시점 연령 j의 생산가능인구/총생산인구

D_{jt} : t시점 연령 j의 취업자수/총취업자수

j: 중졸이하, 고졸, 대졸이상 학력자

2) ECB(2015), "Comparisons and Contrasts of the Impact of the Crisis on Euro Area Labor Markets," ECB Occasional Paper Series, No. 159, 2015
 3) IMF(2022), "Has COVID-19 Induced Labor Market Mismatch?: Evidence from the US and the UK" IMF Working Paper Series

5) 직접일자리 증가

□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* 사업이 늘어남

* 2021년도 1차 추경(25.2만개), 2차 추경(14.2만개, 7월말) 일자리사업 집행

○ 고용노동부⁴⁾ 따르면 2021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은 101.1만명 수준이며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(65세 이상)이 83.8만명으로 82.9%를 차지

□ 실제로 직접일자리가 많이 분포해 있는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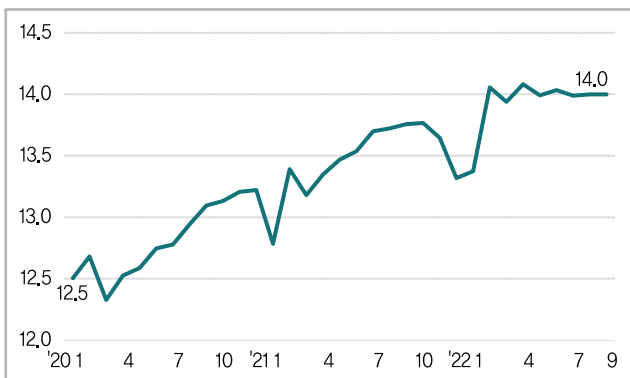
○ 코로나 이전 전산업 취업자 중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.5%에서 '22.9월 기준 14.0%까지 증가

□ 일자리사업이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됨에 따라 직접일자리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 예상

○ 코로나 19 단계적 종료로 직접일자리 7개*는 단계적으로 폐지 예정

* 아동안전지킴이, 해외지식재산권보호, 지역방역일자리,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, 스마트담안전관리, 댐유지관리, 매장문화재보호 관리 등

[그림9] 전산업 취업자 중 보건복지, 공공행정 비중 (단위: %)



자료 : 통계청
주 : 계절조정 계열

6)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부진

□ 코로나 피해가 컸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

○ 코로나 영향으로 산업의 수요가 줄었던 대면서비스업의 생산은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

○ 생산과 달리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은 금년 8월 기준 코로나 이전 수준('20.2월)을 상당폭 밀돌며 회복속도도 더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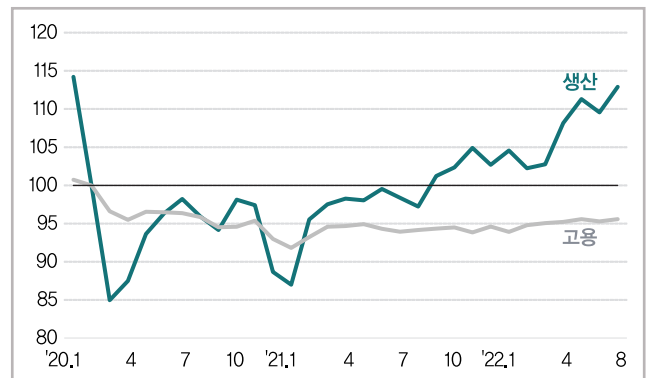
□ 비대면 방식 소비 정착, 로봇·키오스크 등 기계에 의한 업무 대체 등이 대면서비스업 고용둔화의 원인

○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소비가 자리 잡으며 판매직종 등 대면 방식의 일자리가 축소

○ 사업제품의 수요 충격에 대해 고용자의 해고로 대응했던 사업장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로봇,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

- Eichengreen(2020)⁵⁾은 유통업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존하게 되며, 소비자들이 봉쇄기간 동안 학습한 온라인 쇼핑습관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으로 예측

[그림10] 코로나 이후 대면서비스업 생산, 고용 추이 (단위: '20.2월=100p)



자료 :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자체계산
주 :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, 숙박음식, 교육, 예술·스포츠·여가

4) 고용노동부(2022), "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", 보도자료

5) B. Eichengreen(2020), "Schumpeter's virus: How "creative destruction" could save the coronavirus economy", Prospect 2020 July Column

7) 노동력 고령화 지속

□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자들의 취업이 급증

- 고령 남성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와 관계된 사업시설 및 지원, 임대서비스업, 건설업, 운수창고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고, 고령 여성은 돌봄 및 보건 관련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⁶⁾

□ 고령층의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취업자 나이도 많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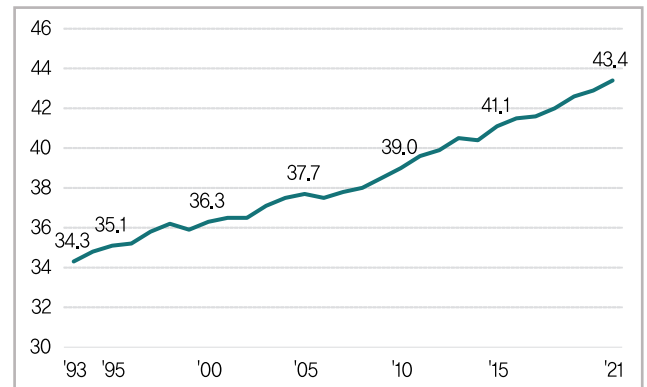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취업자 평균연령은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93년 34.3세에서 2000년 36.4세, 2010년 39.0세, 2021년에는 43.4세까지 높아짐
- 특히 최근들어 취업자 평균연령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음
 - 최근 10년('11~'21년) 취업자 평균연령은 3.8세 증가하며 과거 10년('01~'11년) 동안 3.1세 증가한 것을 능가

□ 취업자가 고령화할 경우 기업들은 고임금 부담, 고도기술직의 인력 부족 등을 겪을 가능성

- 우리나라는 연공제로 고령화된 취업자들의 경우 본인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 있음
 - 직원들에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줄 때 기업들의 부담 커지고 경쟁력 가지기 어려움
- 충분한 교육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고도기술직의 경우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워짐

[그림11] 전산업 취업자 평균연령

(단위: 세)



자료 : 통계청

III. 시사점

□ 국내 고용시장을 살펴보았을 때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도 관찰

- 경제의 높은 고용창출력, 여성층 노동시장 유입, 디지털전환에 따른 고부가 일자리 증가 등은 긍정적 측면
- 노동시장 미스매치, 재정지원 일자리를 대체할 민간일자리 창출, 노동자 고령화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

□ 특히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, 코로나 이후 급증한 직접일자리 정상화 등으로 내년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

- 통화긴축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, 수출 부진 등 겹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금년 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큼
 - 한편 취업자 증가율의 경우 한국은행은 2022년 2.7%, 2023년 0.5%로 둔화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
- 사상최고치를 기록 중인 고용탄성치(1.04)는 점차 장기평균값(0.34)에 수렴할 가능성이 큼

6) 한국노동연구원(2022), "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", 고용·노동브리프

- 코로나 이후 늘어난 직접일자리들도 서서히 줄어들 전망

□ 따라서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생산성 높으며 기업들의 인력 수요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노력이 필요

1) 여성층 노동시장 유입 확대

□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

- 근무형태 유연화 및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
 -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, 유연근로제 활용도 제고,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,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필요

- 육아휴직 활용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 사용 활성화 지원

*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(2019) : 대기업 父 2.4%, 母 24.1%, 중소기업 父 1.1%, 母 12.4%

- 영아 보육서비스는 다양한 양육 방식 지원하고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
 - 영아 보육은 부모의 다양한 수요 맞춰 어린이집, 조부모, 개인 등 다양한 형태 보육 지원

2) 기업 원하는 인재 양성으로 고용 미스매치 해소

□ 현행 교육제도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공급 어려움

- 현행 교육시스템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배출이 어렵고, 회사 입사한 대졸자들은 입

사 후 기업 경험을 한 후에야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우 다수

-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IT기술 발달로 대학교육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

□ 입사후 대학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대학에서 교육받아 적절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

- 온라인 IT 기술을 활용한 대학교육으로 대학 재정부담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여 미래형 교육으로 진화

□ 기업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진로·교육·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

- 차세대반도체, 빅데이터, 바이오헬스,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에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대학생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성화

- 예를 들어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가 멘토링을 결합하여 현장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

3) 디지털전환·그린경제 관련 일자리 창출

□ 향후 디지털 혁신, 저탄소 주도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, 전통 산업에서는 인력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

- 기술혁신 가속화에 대한 인력양성정책, 산업생산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

□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전환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저탄소전환 과정에 맞게 인력 수급을 조절할 필요

- 한국고용정보원(2022)⁷⁾에 따르면 친환경 인프라 구축 수요로 전문과학기술, 수도·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업에서 인력 수요 증가
- 반면 석탄 및 석유정제업, 비금속광물, 자동차 및 트레일러, 금속제품 등에서는 인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

□ 직업의 이동성 높고 고임금인 친환경 일자리 (Green Job)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

- IMF(2022)⁸⁾는 직업의 특성을 일자리가 속한 산업과 직무 등 2가지 측면에서 노동자당 배출량을 측정하여 친환경 일자리를 정의
 - 예를 들어 제조업 중 철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자가 친환경 일자리에 가까움
- IMF는 친환경 일자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일자리보다 직업 이동성이 높고 수입도 7% 높은 것으로 분석

4) 고령층 노동생산성 제고

□ 퇴직인력 활용도 높이고 고령층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

-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고령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·고학력자 비중 큼

- 고숙련·고학력 고령 인구 활용은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
- 고령층이 취약한 디지털 활용능력 높여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 위주의 고령 노동력 활용
- 고령자 교육은 고령에 진입하기 이전인 중간 연령층부터 새로운 숙련 및 지식을 위한 교육·훈련 필요
- 고령자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하되 자기개발 의지 높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

□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점진적으로 전환

- 직무가치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'직무급제' 도입 기반을 조성
 - 직무급·성과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
 - 미국 노동통계국(BLS)이 제공하는 NCS (National Compensation Survey)*와 같은 임금·직무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제공

* NCS는 전국 및 주요 대도시 지역의 직무별 (occupational) 임금에 대한 정보 생산하며, 동일 직무 내에서 직무수준별 임금율도 발표

7) 고용정보원(2022), "디지털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", 대전환 시대의 미래인력 전망 세미나 자료집

8) IMF(2022), "Transitioning to a Greener Labor Market: Cross-Country Evidence from Microdata", Working Paper No. 2022/146

국내 · 외 경제지표

1. 주요국 경제성장률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
한국	2.2	-0.9	4.0	2.6	2.0
미국	2.3	-3.4	5.7	1.6	1.0
중국	6.0	2.2	8.1	3.2	4.4
일본	-0.2	-4.5	1.6	1.7	1.6
유로존	1.6	-6.4	5.3	3.1	0.5

주 : 2022, 2023년은 IMF 전망치임

2. 주요국 환율

(단위 : 원)

	2019	2020	2021	'22. 7월	8월	9월
원/달러	1,156.4	1,086.3	1,188.8	1,304.0	1,347.5	1,434.8
원/100엔	1,063.5	1,054.3	1,030.2	970.5	970.7	993.3
원/위안	165.7	167.0	186.3	193.4	194.8	199.7
원/유로	1,297.4	1,338.2	1,342.3	1,329.3	1,350.3	1,408.8

주 : 기말기준

3. 주요국 정책금리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'22. 7월	8월	9월
한국	1.25	0.50	1.00	2.25	2.50	2.50
미국	1.50~1.75	0.00~0.25	0.00~0.25	2.25~2.50	2.25~2.50	3.00~3.25
중국	4.15	3.85	3.85	3.70	3.65	3.65
일본	-0.10	-0.10	-0.10	-0.10	-0.10	-0.10
유로존	0.00	0.00	0.00	0.50	0.50	1.25

주 : 기말기준

4. 주요 원자재 가격

(단위 : USD/bbl, p)

	2019	2020	2021	'22. 7월	8월	9월
국제유가	67.3	51.1	77.1	105.1	96.6	91.0
CRB 선물지수	185.8	167.8	232.4	312.08	311.06	288.12

주1)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

2) CRB 선물지수는 천연가스 · 금 · 구리 · 니켈 · 옥수수 · 밀 등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하여 산출